

WINTER

2021

하늘꿈중고등학교 겨울소식지



Contents

3	하늘꿈 서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4	하늘꿈 기획	교육신문칼럼 연재
7	하늘꿈 버팀목	안미라 후원자
10	하늘꿈 르포	또 하나의 EUC
12	하늘꿈 가족	나운서 선생님
14	하늘꿈 열매	유송이 졸업생
17	하늘꿈 소식	
18	공지사항	
19	후원자 명단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안주할 곳도 없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믿음의 조상인 이유입니다.

돌이켜보면, 조마조마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온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할 오직 한 가지는, 복음 들고 북한의 지도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탈북청소년에게서 통일시대의 리더가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기하게도 이런 의문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겐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분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학교는 특이합니다. 나도 고아원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퇴원을 하고 다시 그곳을 찾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꿈학교 졸업생들은 친정 오듯 각자 삶의 보따리를 들고 학교를 찾는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 떠온 하인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도 하인의 입장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두려움을 능가하는 믿음의 간증이 제 안에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온 느낌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우리를 안으사 지금까지 온 것이라는 모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기근의 시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나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높은 망루에 올라 머물 곳을 찾고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늘꿈학교는 북한의 구원을 소망하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인내의 길을 또 떠나고자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에 갇힌 북한 형제들을 잊지 마소서. 

하늘꿈 학교장 임 향자

교육신문 칼럼 연재, 하늘꿈 이야기를 담다

교육계 전반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교육신문 <교육플러스>에 하늘꿈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라는 제목으로 두 달간 총 10편의 기획 기사가 연재 됐는데요.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길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학교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육신문 칼럼 게재를 기획한 강운희 연구부장의 인터뷰와 함께 기사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교육신문에 하늘꿈의 이야기가 실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탈북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신 학교 관계자분께서 학교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어요.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현장을 보시고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며 교육신문을 연결해 주셨어요. 학교의 이야기를 통해 탈북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더 생겼으면 하는 취지로 권해주시는 거죠. 교육신문 특성상 교육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읽을 수 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

했습니다. 제안을 받고 10편의 기사 연재를 위해 전체 주제를 구성하고 선생님들께 원고를 부탁했을 때 모든 분이 흔쾌히 동의해주셨어요. 다년간 학생들을 지켜보며 선생님마다 꺼내놓을 이야기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글 안에 탈북청소년을 가까이서 본 목격자로서의 경험 등 좋은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었습니다.

[교육플러스 '하늘꿈 제작소에서' 연재 소개글]

[교육플러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국내에 생긴 지도 2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작을 연 1호 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학력인가 대안학교)는 학생 76명과 교사 24명이 함께 하며 사람의 통일을 이뤄가는 ‘먼저 온 미래의 현장’입니다. 탈북민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탈북청소년은 돌봄과 지원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저희는 정성 담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눈부시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플러스> 연재를 통해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탈북청소년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탈북청소년의 지나온 삶 ▲학교 안에서 펼쳐지는 성장 드라마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칼럼의 세 주제에 꼭 담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① 화성에서 온 탈북청소년, 금성에서 온 한국 교사

연구부장 강윤희

- ▲ 교사지만 우리도 그들에 대해 배워야지요
- ▲ 결핍과 가능성, 동전의 양면과 같은 탈북청소년들
- ▲ 사람, 사랑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② 탈북청소년이 소개하는 '북한에서의 학교생활과 삶'

고등학교 3학년 박소민

- ▲ 북한의 학교생활
- ▲ 북한의 생활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③ 아이들의 탈북 과정 "살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교사 한숙

- ▲ 살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 ▲ 그리움의 다른 이름, 어머니
- ▲ 눈물 꽃이 소망으로 피어나는 곳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④ 탈북학생 한국 정착 과정 "공포, 좌절, 그리움 딛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교사 송은주

- ▲ 뿌리내리고, 반짝이기까지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 ▲ 천일의 이야기
- ▲ 현아의 이야기



#1 그들은 누구인가

우선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정착, 이 세 주제로 나뉘는데요. 탈북청소년에 관심이 있어도 대부분 탈북 과정이나, 그들의 부족함, 대한민국에서의 어려운 상황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치우침은 그들의 일면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이고 복합적 시각으로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생애 전체를 아울러야 탈북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그들은 누구인가'에선 독자들이 그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2 그들의 성장 드라마

두 번째 주제는 '성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초 학력 부진, 소외 계층이라 불리는 이들은 실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나가고 있음을 우리 선생님들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학교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변화를 알리고 싶습니다. 실패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닌, 학교와 가족사에서 지내는 동안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생생한 현장을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⑤ '탈북청소년 교육'이라는 길을 개척하다

교장 임항자

- ▲ 긍휼한 마음, 탈북청소년 교육의 시작
- ▲ 정착은 쉽지 않았다
- ▲ 남북 화해자, 통일의 주역들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⑥ 한반도 지도에 "저건 양말인가요?"...역사쟁의 수업 이야기

교사 함혜원

- ▲ 시간이 필요해
- ▲ 세계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 ▲ 좁고 작은 너의 세계가 한 뼘이라도 넓어지길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⑦ 우리들의 간 떨어지는 동거...가정형 기숙사 이야기

영양사 이지은

- ▲ 하늘꿈의 가정형 기숙사
- ▲ 가정형 기숙사의 일상
- ▲ 가정형 기숙사의 추억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⑧ 졸업생이자 예비교사 혜정의 편지

졸업생 김혜정

- ▲ 낯선 한국에서 만난 하늘꿈학교
- ▲ 한동대학교에서의 성장
- ▲ 대학원생 & 기숙사 생활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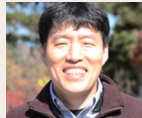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⑨ 학력격차 큰 탈북청소년, 'AI' 내비게이션을 만나다

교무부장 김재영

- ▲ 패현의 유방이 서초패왕 향우를 이기다
- ▲ 나침반과 지도 대체한 내비게이션의 일상화
- ▲ 소외 계층 및 북한 학생을 위한 기초 학력 성장 맞춤형 수업 제공



[하늘꿈 희망제작소에서]

⑩ 탈북청소년의 성장과 교육, 그래서 해법은?

연구부장 강윤희

- ▲ 졸업생들의 삶으로 증명해 준 학교교육
- ▲ 하늘꿈중고교만의 노하우, 탈북청소년 성장과 교육에 대한 해법 제시



#3 교육을 통한 변화

세 번째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교육의 가능성, 그리고 '학교'가 가진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늘꿈엔 대한민국 땅에서 잘 살아가는 졸업생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소수의 부정적자로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는 모든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제공할 때 실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가정의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교사는 전문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사랑을 더하여 돌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전인적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사회에 필수적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탈북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학생 중에서도 부모의 온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학교 교육은 중요한 대안이 돼야 합니다. 점점 학교 교육은 무너지고 회의가 만연하지만 제 기능을 해내는 학교가 있다는 희망의 사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교육신문에 글을 게재한 후 어떤 피드백이 있었나요?

해당 신문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요. 좋은 경험이 담긴 글에 대한 감사와 반응이 엄청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자님께 연락해서 내용을 더 물어보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일부에 다니는 지인에 게 기사를 공유했더니 통일부 내부에도 전달되어 궁금해

한다고요. 그리고 한 국회의원님께서 하늘꿈학교를 교육 우수 사례로 언급해 주시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과 학교의 열정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하늘꿈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원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도 후원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이 깨닫길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후원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도록 후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라는 부탁의 말을 남긴 안미라 후원자님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미라 후원자님 가족사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당 사랑과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미라입니다. 용인대학교에서 댄스스포츠를 전공했고 같은 과 댄스 파트너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8살, 6살 두 아들과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지금은 남편과 함께 ‘굿댄스아카데미’라는 스포츠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5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11년 영국에 유학 갔을 때 한인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기도하는 두 아들



댄스 대회 중 십자가를 표현한 장면

어떻게 하늘꿈학교를 알고 후원하게 되셨나요?

하늘꿈학교에 근무하셨던 임가은 선생님을 교회 부부 목장에서 만났고 그때 선생님께서 학교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탈북민에 대해선 ‘정부에서 잘 챙겨주고 있겠지’ 생각하고 가끔 예배 시간에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 세 가지의 순종을 드러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탈북민 ‘오청성’ 씨에게 후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후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였으니까 바로 헌금했죠. 하지만 탈북민 ‘오청성’ 씨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연락처도 모르고 후원할 방법이 없었는데 우연히 ‘오청성’ 씨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고 자막으로 후원 계좌가 나왔어요. 순종의 때라고 여겨 바로 후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확한 액수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인도 단기 선교 헌금도, ‘오청성’ 씨 후원도요.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 10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고민되더라고요.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지만, 기업도 아니고 매달 하기에는 큰 액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탈북청소년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꿈학교에서 일하시는 임가은 선생님을 교회 목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탈북청소년들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물질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에 큰 액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이 느껴졌어요.





댄스 스포츠 대회 중



2020 굿댄스 페스티벌

얼마 전에 학교에 ‘후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기적처럼 정확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코로나 이후 학원이 어려워지면서 후원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2년쯤 했으니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족 예배 시간에 이 상황을 함께 나누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라며 계속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우리가 조금 더 아껴서 생활하고 후원은 계속하자고 말해줘서 중단 요청 대신 기도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힘이 있으니까요.

하늘꿈학교 후원을 시작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해 느끼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북한을 위해 더 기도하게 돼요. 특히 통일을 준비하며 한국교회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북한 주민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이 마련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준비가 됐을 때 통일을 이루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후원’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살펴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늘꿈학교를 후원하는 것은 통일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하늘꿈학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이곳까지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북한과 탈북민에 관심이 없던 제가 후원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늘꿈학교의 동역자, 그리고 저를 비롯한 후원자님들께는 지금 다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믿고 후원을 중단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후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세요.”

또 하나의 EUC, with 하늘마음교회



하늘꿈학교는 매년 여름 남한 청소년과 탈북청소년, 그리고 교포 2세들이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통일 비전을 나누는 영어통일캠프(EUC, English Unification Camp)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캠프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새 학기를 믿음으로 무장할 기회가 없어진 하늘꿈 공동체에 영적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EUC를 기획했습니다.

Energy Up Camp

하늘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분당 하늘마음교회가 돕는 손길이 되어 함께 EUC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EUC는 사랑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교사를 위해 열렸는데요. 찬양팀 HIS WAVE의 은혜로운 찬양을 시작으로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차성목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과 씨름하며 마음이 상할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요게벳의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세상 것보다 중요한 세계관을 심겠다는 다짐을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Be alive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아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교사 EUC의 충만함을 안고 개학과 동시에 4일간의 본격적인 EUC가 시작됐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에스겔 37장 9~10절 말씀을 주제로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예배, 말씀 따라 진행된 EUC의 현장 속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선한목사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과 놀이 감상 풀기



큰 군대를 만들기 위한 여정!
다양하게 구성된 코스게임



조별 나눔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표현하고,
나를 그려보는 시간, '내 마음의 천소'



'내 마음의 천소' 마지막 단계, 각자가 선포한 다짐의 시간.
"노으로 하나님 외의 것에 굴복하지 않겠다."



UCC 촬영 중, 바른 뼈에 새기가 들어와 변화된 모습을
연기 중인 선생님들과 학생들



HISWAVE의 찬양으로 문을 연 EUC, 다윗처럼 춤추는 시간



하늘마음교회 차석복 담임목사님의 말씀 선포,
"먼저 건짐 받은 보혜사님의 사명을 갖자."



선력의 '상대하심'이 가득했던 기도회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하늘꿈학교 학생들

11월, EUC 정기예배가 첫발을 내딛습니다. 매월 열릴 정기예배는 단단하게 뿌리내려 하늘꿈 공동체의 영적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동행한 하늘마음교회의 사역과 하늘꿈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올여름, 2년 만에 돌아올 English Unification Camp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제 삶에 찾아오시고

길을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윤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입사해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윤서입니다. 2개월 전부터 청담동에 있는 기숙사 생활교사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청소년이 통일을 만들어낼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기에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을 향한 비전의 시작

대학 교내 봉사 동아리에서 매년 2학기마다 열리는 ‘북한 중보 주간’ 행사를 준비하고, 탈북 과정을 밀착 취재한 영상을 보며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영상에서 탈북민들은 삶의 소망을 붙들고 매순간 목숨을 걸며 사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실제로 되길 바라며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할수록, 북한 땅을 벗어나다고 해도 소망했던 삶을 사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탈북민은 목숨을 걸게 했던 소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정착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에 짓눌려,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지도, 꿈을 꾸지도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이 특히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선 아이들이 자신을 창조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을 슬퍼하시고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혼란스럽고 외로웠던 청소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무력하고 초라했던 시기에 내 편이 돼주시고, 막막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매여 있던 제가, 완전한 양육자이자 친구이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비전에 합당한 일을 구하던 중, 당시 See-It 간사였던 친구를 통해 학교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현재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입사 전 봉사자로 참여한 백두대간원정대

어려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지만, 업무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낮선 회계 업무, 배울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 업무량에 쉽게 지쳤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에 맞는 말씀과 도움을 가지고 급히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선생님들의 동역, 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중보를 통해 부족함 없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일했던 다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입사한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학교에 치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두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를 하던 중, 탈북청소년 사역에 뜻을 가진 회교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모든 학생이 매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1~2명이 아닌, 북한의 모든 자녀를 먹이고 고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의 풍성함에 감격했습니다. 이후 감당이 안 되는 일에 무기력해지고 지칠 때 일을 떠올립니다.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학생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숙사 생활교사

저는 올해 9월부터 기숙사 생활교사라는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작고 연약한 그대로이지만, 아이들의 아픔을 넉넉히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울함이 덮인 상태로 있다가도, 기숙사 예배 모임에서 위로를 받는 모습,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기댈 곳은 역시 하나님 도움뿐이네요.”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학교와 기숙사에서 만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세상과 사람에게 결코 받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가진 분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도전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탈북청소년이 하나님을 만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하늘꿈 학생 모두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



입사 전 봉사자로 참여한 백두대간원정대



고등학교 2학년과 함께한 남이섬 견학



기숙사 제자와 함께한 단양 수학여행

상처받은 아이들을 품고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늘꿈학교 16회 졸업생
유송이

대한민국, 그리고 어머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하늘꿈학교에 입학해서 2020년에 졸업한 유송이입니다. 2016년에 북한을 떠나 한국에 왔으니 한국 생활 만 5년이 되어갑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나요?

어머니와는 20년 전 제가 4살 때 헤어지고 그때부터 집도 신분증도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무산에서 청진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를 하려면 무산을 다녀와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달리, 거리가 가까워도 교통이 불편하고 무엇보다 다녀올 돈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못 했어요. 아마 한국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기 힘들실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집도, 신분증도 없이 살았던 거네요.

집이 없다 보니 아빠와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먹고 살기 위해 어린 나이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인조고기, 카세트, 나중에는 중국옷도 팔았습다. 이렇게 장사를 많이 했는데도 입에 풀칠을 겨우 했어요. 그러던 중 2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니까 어머니에게 도움만 좀

받아보려고 일단 국경 근처로 갔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어머니는 저를 한국으로 데려올 생각이었고 브로커들이 저를 헤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 꿈을 이룰 수 있어.”라고 하시는데 그 말보다 영상 속 어머니가 너무 예뻐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했고 어머니와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어머니와의 첫 만남 기억하나요?

중국을 거쳐 제3국의 선교센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직접 그곳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전도사님이 되신 어머니는 저를 포함해 탈북민 전체를 마중 오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하루 반나절 있다 가셨는데 서로 반가운 티를 못 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만났다고 좋아하면 북한에 어머니를 두고 온 다른 분들이 속상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조심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하룻밤 함께 자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도착했어도 어머니를 바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핵이 아주 심했거든요. 아마 북한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겠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약값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약을 불규칙하게 먹으니 내성 결핵이 되었고, 한국 도착해서 국경원 조사를 받기도 전에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다시 만났죠. 결핵약을 15알씩 3년을 먹었고 지금은 완벽하게 치료했습니다.



수학여행



2018 상계광림교회 하늘꿈 중창단 특송

비전을 향한 여정

어머님의 소개로 학교에 오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는데 입학할 위해 교감 선생님과 면접을 봤어요. 다 마치고 제게 중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라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는데 저는 그런 사정을 잘 모르고 불평했어요. 어떻게 어린 애들이랑 수업을 들냐고 하면서요.

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 QT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등교 1시간 전에 저와 몇 명의 학생들이 담당 선생님과 매일 QT를 했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참 돈독한 관계가 됐어요. 학교 졸업하고 아침 QT를 스스로 지키고 있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기독교교육학과에 진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학교를 못 다니면서 꿈을 잊었어요. 탈북 후 진로를 고민하면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

각과 함께 기독교교육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제 롤 모델인 어머니께서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 바로 직속 선배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됐나요?

중국에 넘어가서요.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집도 없이 힘들게 살게 두셨는지, 우리 아빠는 아직 하나님을 모를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의문은 많았죠.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꽃도 아니고 풀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풀 옆에 개미가 기어가는 걸 보다 개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놨는데, 문득 내가 개미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미는 내 손바닥 위에 있으면서도 손의 주인인 나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죠.



2021 어머니 목사 안수식



결혼 사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올해 결혼을 했어요.

남남북녀

어머니를 비롯해 주변 분들이 저와 남편을 두고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그 교회 목사가 서로 아는 사이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고 보니 남편은 북한에 비전이 있었고 서로 배우자 기도 제목으로 품었던 마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보다 빨리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게 예쁘다는 말을 자주 해주는 사람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비전이 궁금해요.

저희가 남과 북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싶습니다. 남과 북이 만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남편과 함께 이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요즘 너무 눈에 밟혀요. 그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편과 함께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주님이빛나는교회’라고 이미 교회 이름도 지었어요. 저는 교육으로 남편은 설교로 북한에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하늘꿈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후원자님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 버티고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 가장 생각 많이 나는 분들에게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힘들다고 투정하지 말고 하늘꿈학교 있을 때 즐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졸업하면 더 힘든 세상이 있는데 그때 버티려면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송이와 남편의 비전은 북한에 ‘주님이빛나는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선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통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 부부가 북한에 세워질 교회를 꿈꾸고 준비하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I. 신앙 PART

하늘꿈학교 교육의 기초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제자훈련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3명의 학생이 지원했고 매주 월요일 저녁 훈련의 과정을 함께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해서 10주간의 훈련과정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II. 지성 PART

통일시대에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노력

각종 체험활동

10월 중간고사를 마친 후 하늘꿈의 시간은 분주히 흘렀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교외 체험 활동이 가능해져 미뤄왔던 수학여행이 비속박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철원에서 래프팅, MTB, 서바이벌 등 이색 체험을 하고 단양에서 고수동굴과 단양 8경을 보며 한국의 아름다운 비경을 만났습니다. 또한 식물원과 민속촌 견학을 하며 학교와 집만 오가며 답답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드넓은 공간에서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III. 진학 및 취업 PART

내게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준비하며

고3 대입 및 취업 준비 현황

올해 고3 학생 수만큼이나 많은 합격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리더십, 사회복지학, 법학과, 간호학과 등 각자의 비전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지원한 곳에 모든 학생이 합격해 대학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형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교대 지원 학생과 대학이 아닌 취업이라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고3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IV. 남북통합 PART

사람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현장

생수의 강 기독교학교 DMZ 견학 & UIC 예배

생수의 강 기독교학교와의 교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0월 두 학교 학생들은 DMZ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평화누리 공원에서 팀별로 여러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임진강을 바라보며 북한의 복음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만남의 수만큼 교감을 쌓아가는 학생들은 한 달 뒤, 올해 마지막 UIC(Unification in Christ) 예배에서 만났습니다. 생수의 강 학생들의 찬양 인도와 말씀 시간을 갖고 조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사진 중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사진을 골라 발표하는 시간에, 하늘꿈 정현호 학생은 민들레 씨앗 사진을 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이곳저곳으로 날아가 꽃을 피우듯,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자리 잡아 통일이란 꽃을 피울 것이다.” 말씀 안에서 서로 교류하며 성장해나가는 생수의 강 교류 현장이었습니다.



V. 인성 및 건강 PART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독감 예방접종 & 전문 상담

올해도 선한목자교회의 지원으로 교직원과 전교생이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했습니다. 매년 아낌없이 지원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기엔 신형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용기는 마음이 변화되는 시작점입니다. 상담의 여정에 학생들이 손을 놓지 않길 바라며 건강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기도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공지사항

하늘꿈학교 카카오 채널 오픈

채널 내용

하늘꿈 교육의 비밀	필름 안에 담긴 우리의 고백	참 소중한 우리의 일상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탈북청소년 맞춤 교육 커리큘럼	북한의 복음화를 향한 메시지, The Seeds	사계절 소식지, 소소하고 따뜻한 러브레터	힘들게 꺼낸 이야기를 그려낸, 기도 편지

영상과 소식지, 그리고 기도 편지 등 하늘꿈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하늘꿈학교'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1:3 탈북청소년 양육

1:3 탈북 청소년 양육이 무엇인가요?



**셋이 함께
기도 하고
후원 하고**



1. 3명의 후원자는 신청하신 순서대로 한 팀이 되어 1명의 학생을 후원합니다.
2. 학생의 월별 근황을 3명의 후원자에게 동시에 보내 드립니다.
3. 월별 근황을 보시고 양육 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031-758-2071) 또는 겨울 소식지에 동봉한 '1:3 탈북청소년 양육' 리플릿을 참고해 주세요.

▶ 기도해주세요

1. 12월 18일에 업로드되는 '하늘꿈 감사의 밤'(영상)의 기획과 진행의 모든 과정이 감사와 사랑으로 준비되어 후원자님들께 온전한 마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2. 교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부르심의 사명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후원자명단

<2021년 8-10월 후원자>

HEAVENLY DREAM SCHOOL

<개인후원>

NMK 강건 강경인 강대웅 강문호 김은애 강보경 강석란 강선영 강선희 강성환 박난숙 강수진 강승현 강영욱 강유정 강윤모 강은주 강지원 강진홍 강진희 강한빛 강홍재 경순미 고남숙 고문주(이정은) 고순예 고애순 고영진 고원복 고준호 고차원 고한송 고현희 곽원섭 곽호진 곽희령 구경희 구병삼 구효민 권대영 권상영 권세영 권영미 권윤옥 권은숙 권익환 권진희 권후자 김종두 김강석 김건철 김경곤 김경우 김경옥 김경의 김경이 김경준 김경하 김경환 김경희 김계자 김고은 김공순 김교식 김규미 김근희 김금숙 김기태 김기홍 김다인 김대열 김덕수 김동섭(풀무원드림상사) 김동현 김만희 김목화 김묘선 김무수 김미경 김미경 김미나 김미선 김미자 김민규 김민정 김민지 김보경 김보연 김상현 김상활 김서연 김선중 김선희 김성균 김성미 김성식 김성영 김성은 김성현 김세정 김소영 김수민 김수정 김순복 김순애 김승범 김승희 김신애 김아림 김아미 김아영 김여환 김연중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특 김영한 김영희 김예은 김옥자 김용미 김원아 김유라 김유리 김은덕 김은란 김은미 김은수 김은희 김은희 김인숙 김인애 김인울 김일권 김일희 김정미 김정한 김정호 김정희 김종익 김중훈 김주연 김주희 김준호 김준희 김지근 김지수 김지연 김지인 김진숙 김창석 김창숙 김창진 김태연 김필수 김필준 김하림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형애 김형준 김혜인 김호성 김화영 김훈성 김홍순 김희연 김희정 나옥 나윤서 남광우 남금행 남소주 남정희 노금자 노상근 노석근 노재열 도태우 라승남 라주영 류규희 문수정 문운태 문채은 문형석 박경숙 박근양 박기원 박나래 박난희 박동소 박동찬 박미숙 박미영 박민호 박범도 박선여 박선영 박성숙 박성은 박성희 박세중 박세호 박수경 박수영 박신영 박옥순 박유찬 박은숙 박은영 박재원 박정자 박종영 박주향 박지연 박지영 박찬미 박찬수 박찬희 박태구 박한나 박현선 박혜경 박혜영 박호선 박호준 박호정 방효은 배경자 배민철 배선애 배연옥 배우미 배재범 배정인 배현규 백기범 백서연 백창현(박세정) 변창수 서동민 서신덕 서영옥 서원희 서은광 서정숙 서창오 성재우 소정섭 손경연 손민영 손영환 손주호 손혜경 송미화 송영호 송예진 송옥기 송은주 송재원 송준옥 송현섭 송현석 송현혜 유성혁 신기루 신기원 신다혜 신미령 신민우 신선원 신성순 신수지 신수진 신승일 신윤미 신재경 신현주 신현호 심경희 심보라 심현식 안상미 안성숙 안연희 안옥선 안종성 안지영 안지혜 안진규 안진화 양동훈 양승달 양선아 양선아 오민아 오민택 오상윤 오용택 오은수 오한석 오화봉 옥승란 우선숙 우하영 우현정 원두연 원용선 원희석 위영태 위정현 유명준 유성우 유성은 유용만 유은희 유의동 유지영 유지혜 유현숙 윤경원(파님) 윤광우 윤동일 윤미선 윤미희 윤삼희 윤용한 윤지강 이건용 이경렬 이경옥 이경임 이경희 이광영 이기숙 이낙영 이능경 이두원, 박미란 이명현 이문기 이문종 이미지 이민근 이민옥 이병일 이병희 이부길 이상미 이선아 이선자 이선주 이선희 이상국 이상옥 이상우 이상후 이상희 이수미 이수화 이수근 이송용 이영란 이예은 이예진 이완준 이원미 이원순 이우정 이우정 이우주 이은선 이은정 이은진 이인화 이재경 이재동 이재영 이재준 이재훈 이정숙 이정원 이정은 이정인 이정희 이준필 이종경 이종원 이주연 이지애 이지은 이지는 이진규 이진숙 이진주 이철용 이태만 이태용 이학숙 양영숙 이한나 이혜든 이현숙 이현숙 이현아 이혜숙 이호연 이호순 이후남 이훈희 이희라 이희린 이희순 이희천 인지연 임가는 임경아 임다솔 임미선 임석원 임여진 임영숙 임윤아 임은 임은주 임재경 임현주 임형묵 임혜정 임희숙 장귀옥(장대보라) 장동현 장성옥 김춘희 장세환 장순덕 장연지 장익진 장인석 장진실 장한나 전계화 전성미 전수정 전유화 전태숙 전호진 정경란 정길아 정동현 정미선 정미순 정미희 정민호 정병윤 정성운 정소정 정시영 정연양 정요한 정응섭 정유진 정윤경 정은희 정재우 정재한 정재호 정주화 정지영 정지희 정진근 정진수 정창우 정행자 정학준 정현강 정희경 제갈민정 조명희 조미숙 조상준 조성라 부성범 조성민 조연행 조영광 조영란 조오재 조윤경 조재수 조정희 조찬영 조한 조현옥 조현정 조혜련 조혜숙 조혜원 조홍희 조희준 주민선 주순희 주희주 주희정 지인혜 진미현 진희주 차은경 차홍선 채경령 채수련 천윤정 천향숙 최대환 최란규 최명옥 최민수 최선미 최성범 최성용 최성이 최성일 최수은 최숙희 최안나 최영순 최영자 최영향 최옥수 최윤정 최은실 최은주 최인섭 최준호(이은주) 최철훈 최해원 최형숙 탁지혜 태수길 태원우 하세호 하유진 하은희 하진희 하창직 하한, 서승희 하혜숙 한규하 한상열 한재희 한정애 한정희 한지연 한진용 한춘자 한현진 한혜경(김기현) 한혜미 함재연 함재주 허순영 허영미 허진 허혜림 현은주 홍가는 홍기옥 홍미영 홍요섭 홍원표 홍은주 홍정표 홍현정 홍혜진 황광옥 황은혜 황인자

<단체후원>

(주)경도기술 (주)니코글로벌 (주)브러쉬워 (주)유한조경개발 (주)인터케어 (주)제이앤비컨설팅 가락동부교회 강서침례교회 광성교회청나비선교회 권선제일교회 글로벌엘리트선 기쁨교회 남산감리교회 내동교회 내수동교회 능곡제일교회 더사랑의교회 북한선교부 더프레임종합건설 돈암감리교회 동광교회 동송교회 드림교회 미아중앙교회 반석교회 북아현성결교회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사랑과은혜교회 사랑하는교회 산성교회 삼성교회 상계광림교회 새빛전원교회 서문교회 선단화복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성남제일교회 세신교회 시흥하늘꿈교회 신촌감리교회 신촌장로교회 아돌람선교회 아산병원진단검사학과 영통교회 예수님의사람들교회 옥토교회(원성동) 와이즈스터디 우리들교회 일가재단 일산광림교회 잠실새내교회(신천교회) 정동제일교회제자들과교회 주님사랑교회 주석회사 아텍스 중국교회 지구촌교회 목장 지구촌교회 통일선교팀 진남제일교회 참빛교회 최기은&안미라그댄스 포도나무기도방 하늘가축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사회봉사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나희 한빛교회 할렐루야교회 통일선교회 함께지어가는교회 행복나무교회 혜성교회

<물품후원>

(주)다비죽종 (주)영원무역 김유진 김진하 동송교회 라이프미선교회 법사랑(성남) 부광교회 북한인권정보센터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에스케이오료교회 익명성도 우림빌딩(정읍)

하늘꿈중고등학교에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름은 실지 못했지만, 학습 봉사, 주방 봉사 등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위 후원자 명단은 후원금 계좌에 입력된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후원 관련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하늘꿈학교로 연락 주시면 우편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 (사)좋은씨앗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후원을 해주신 개인 및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늘꿈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방법>

1. 하늘꿈 프렌즈(자원봉사자)

주방 봉사, 1:1 과외 지도, 행정 봉사 등

(하늘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www.hdschool.org 에서 신청. 요청 시 봉사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2. 후원

정기 후원(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물품 후원(식품, 의류,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기념일 후원 등
후원계좌_국민은행 331301-04-096542 사단법인 좋은씨앗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

연락처 | 031)758-2071 | www.hdschool.org

* TOV PROJECT

하늘꿈학교 소식지는 종이와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